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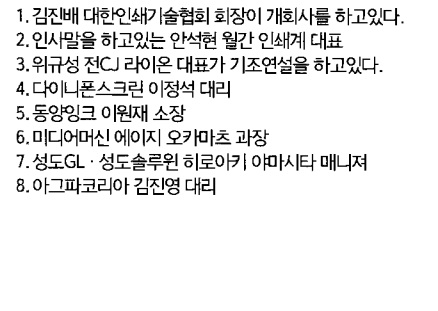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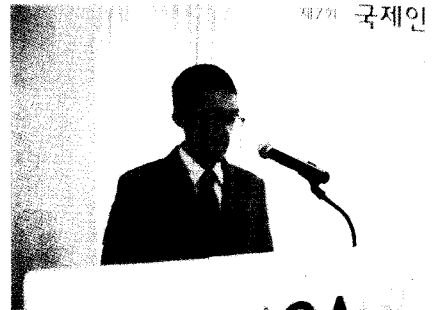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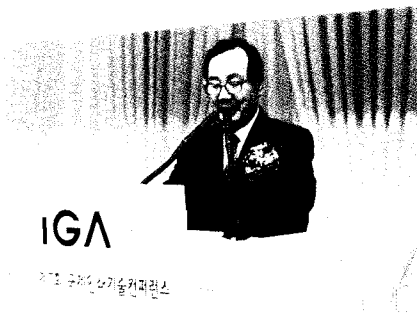


제7회 국제인쇄기술컨퍼런스 ‘인쇄표준화는 세계와의 소통’ 친환경 및 다양한 솔루션 소개

제7회 국제인쇄기술컨퍼런스(이하, IGAtec2011)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호텔PJ에서 개최됐다. 이날 컨퍼런스는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남수 회장,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남원호 이사장 등 내외귀빈과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대한인쇄기술협회(회장 김진배)와 월간 인쇄계(대표 안석현)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는 대한인쇄기술협회 김진배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위규성 전 CJ LION 대표의 기조연설, 참가업체들의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김진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인쇄기술컨퍼런스가 2006년 첫 회를 시작으로 올해 7회째를 맞으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인쇄산업을 대표하는 국제적 행사로 성장 발전했다”며 “이번 컨퍼런스는 ‘인쇄 표준화는 세계와의 소통’이란 대주제와 친환경 인쇄, 품질표준, 국제인증 등의 부제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세계 인쇄산업의 기술적 흐름을 진단, 우리 인쇄산업계의 대응방안과 새로운 산업적 지표를 제시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인쇄기술협회는 ISO/TC130 한국위원회의 운영을 통한 세계인쇄 시장의 변화흐름에 대응하고 있으며 친환경인쇄위원회, 품질관리위원회 등 개선된 4개의 위원회 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인쇄업계에 산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 김진배 대한인쇄기술협회 회장이 개최사를 하고있다.
2. 인사말을 하고있는 안석현 월간 인쇄계 대표
3. 위규성 전CJ 라이온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고있다.
4. 다이니폰스크린 이정석 대리
5. 동양잉크 이원재 소장
6. 미디어머신 에이지 오카마츠 과장
7. 성도GL · 성도솔루션 히로아키 야마시타 매니저
8. 아그파코리아 김진영 대리

세계 인쇄업계의 최신 정보 소개

개회사에 이어 위규성 전 CJ LION 대표는 디자인과 마케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통해 인쇄산업과 디자인의 관계가 밀접하고 유기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쇄와 디자인을 통합적으로 보는 직관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X-rite japan의 에이지 오카마츠 과장은 프린팅 표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앞으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인쇄제작과정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그파코리아의 김진영 대리는 인쇄표준화를 통한 잉크 최적화 솔루션을 소개했다. 특히, 아그파코리아가 지난 2007년 이후부터 여러 인쇄사들의 G7 마스터 인증취득을 지원했으며 아그파의 잉크최적화 솔루션을 사용한 인쇄사들이 인쇄 사용량을 최대 36%까지 절감했으며 인쇄품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동양잉크 이원재 기술연구소장은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해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동양잉크는 다양한 친환경 잉크제품을 선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잉크와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LED Cure UV잉크 등을 공급해 고객들의 친환경 작업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의 이정석 대리는 스마트 워크플로 솔루션을 주제로 성장하고 있는 원 투 원 DM 작업을 지원하는

다이니폰스크린의 최신 인쇄시스템을 소개했다. 한국하이텔 베르그(유광수 부장)는 인쇄토탈솔루션을 통한 인쇄품질표준화 관리를 주제로 프리프레스에서 후가공에 이르는 인쇄의 전과정에 걸친 장비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하이텔베르그의 제품군과 이를 도입한 고객의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후지필름의 히로아키 야마시타 테크니컬 매니저는 후지필름의 activities and contributions for the Print standardization를 주제로 후지필름이 제공하는 XMF 워크플로와 이를 지원하는 최신 장비를 소개했다.

제6회 인쇄산업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컨퍼런스에 이어 제6회 대한민국인쇄산업대상 시상식도 개최되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 표창과 대한인쇄기술협회장상, 우수 임직원 표창 등으로 진행됐다.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은 박삼도 월드레이저 회장(기술혁신 부문), 이재수 일진PMS(주) 부사장(기술개척 부문), 오성상 신구대학 교수(인력진흥 부문) 등이 받았다. 대한인쇄기술협회장상엔 오창관 신생산업사 대표(기술혁신 부문), 손동구 성도GL 이사(기술개척부문), 이원재 동양잉크 연구소장(교육혁신부문) 등이 수상했다. ↻